

즉각적인 발표를 위하여

2006년 2월 22일

캘리포니아, 아주사 -

2006년 2월 8일에 제 3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웨슬리안 성결 연구 프로젝트’(WHSP)는 캘리포니아 포모나에서 목회자들의 회합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 ‘3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1. 교회의 미래 사명을 위하여 성결의 현대적 진술을 표출함
2. 메시지를 재 강조함에 있어서 성결의 유산과 함께 교단간의 연대를 꾀함
3. 성결 선언문을 작성함
4. 참여 교단들의 저자들이 함께 저술한 책을 출판함

‘웨슬리안 성결 연구 프로젝트’(WHSP)는 아래와 같은 복미 십개 교단의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위임 받았으며 재정적 후원을 받았다.

구세군(Salvation Army)

나사렛교단 (Church of the Nazarene)

자유 감리교단(Free Methodist)

그리스도안의 형제 교단(Brethren in Christ)

퍼스퀘어 교단(Foursquare Gospel)

국제 오순절 성결교단(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Anderson)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in Christ)

믿음의 방패 교단(Shield of Faith)

크리스천, 선교사 연맹(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교단 지도자들은 매해 기금을 조달하였으며 3인의 학자/지도자를 임명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들간의 좌담에 참여토록 하였다. 연합적 노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12개 이상의 연구 논문이 참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주요 결실은 교회를 위한 성경적 비전을 중심한 연합을 위한 부름과 선언으로서의 ‘성결 선언문’이다.(첨부 별지 참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2년간 각 교단에서 파송된 지역별 지도자들은 ‘연구 일정’에 이어서 ‘웨슬리안 성결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목회자의 날’을 설정하고 인도하였다.

이 일들은 ‘21세기의 성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 연사들로써 잭 헤이포드(Jack Hayfor), 조지 바나(George Barna), 로버트 쉐러(Robert H. Schuller), 데이빗 번디(David Bundy), 케빈 마노이아 (Kevin Mannoia)등이 포함되었다.

‘목회자의 날’의 많은 시간들이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의 성결 메시지의 중요성’을 논하는 목회자들 간의 대화를 위해 할애되었다.

책의 출판을 위한 편집은 2006년 여름에 완성될 것이다. 공동저자로는 조지 맥키니(George McKinney -COGIC), 아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 -Free Methodist), 잭 헤이포드(Jack Hayford -Foursquare), 제임스 얼 매시 James Earl Massey -Church of God), 다이앤 레클러(Diane Leclerc -Nazarene), 리사 돌-

시(Lisa Dorsey -Shield of Faith), 조나단 레이몬드(Jonathan Raymond -Salvation Army), 린 두루쉬(Lynn Thrush -Brethren in Christ), 단 돌슨(Don Thorsen -Free Methodist) 등이 있다.

연락처: 케빈 마노이아(Kevin W. Mannoia) 전화 626-815-6000 ext. 3243 또는 이메일 kmannoia@apu.edu

성결 선언문

웨슬리아 성결 연구 프로젝트 , 캘리포니아, 아주사, 2006년 2월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

설득력 있는 성결 메시지의 표현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적은 없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모든 수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단이나 교회의 회중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추구노력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다. 모든 전통적 교회들의 회원 증가 그래프는 수평선이 되었다. 많은 경우에 교회들의 교세는 감소하고 있다.

복미주에서 우리는 생물학적 증가율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교회들의 능력과 열정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방법과 효과적인 유행, 그리고 성장을 위한 새롭고 더 큰 프로그램을 찾기에 소진되어 왔다. 성장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 마법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비효율적이 되었으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구분되지 않는 회중들을 만드는 유전적 기독교의 희생이 되었다. 교회들은 사명의 초점으로서의 방법의 '성배'를 대신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들의 메시지는 곧 우리들의 사명이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들은 숫자적, 프로그램적 세력을 확장하려는 성공 심리에 의해 인질이 되어버린 지도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들은 교회 사역을 '어떻게'라는 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선포해야 할 '무엇'을 소홀히 해 왔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론적 노력들로 '시장'(Market)을 범람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지도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들이 더 이상 지도자일 수 없는 이유는 감동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숙지하는 변환적 이해(Transformational Understanding)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적 능력을 알고 또한 갈망하고 있다. 삶의 변화 곧 성결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잠기기를 그 어느때보다 더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방법론을 신뢰하기에 지쳐있다. 그들은 사명을 원한다. 그들은 메시지를 원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추억을 소유하지 못한채 미래를 기다린다.

그들은 크리스천들로부터 납득할만하며 뭔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온전하고 관대한 말을 듣기를 갈망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련된 분이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성가시게 하는 언어나 선부른 기대들, 그리고 비타협적인 양식을 고집하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며, 중심이며 진수인가?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이며 사명이다!

교회 내의 사람들은 구획과, 교단과, 분열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사소한 한계 설정의 경계선들에 지쳐있다. 그들은 제도화에 지쳐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름이나 제도를 초월하는 뚜렷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

그들은 교회들이 복음의 부분들을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양 옹호하려는 교회들의 집단 심리에 당혹해 한다. 그들은 변화와 통합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들은 우리로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위대성을 보기 원한다. 그들은 우리가 모두 똑같이 닮지 않았으며 다양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삶과 사랑을 시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의해 우리가 하나됨을 적어도 어디에선가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알고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메시지는 오직 다양성 속에 내재하시는 화합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교회의 복지를 위해 '성결'에 새로운 초점을 둬서 출발한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초점은 모든 시대, 특히 이 시대에 존재하는 크리스천에 관한 성경의 핵심이다.

우리가 가진 메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고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림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한 생명, 소망,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 속박,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도록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도 거룩할 수 없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뤄야 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다. 성령에 의해 능력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며 사랑하는 것이다. 성결은 선물이며, 응답이며 회복이며, 변화이며, 개인적이며, 단체적이며, 윤리적이며, 선교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대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거룩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도 아니며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우월의식 속에서 배타적이고 사적인 상태를 추구하지 않는다. 성결은 완전무결함이 아니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다. 마치 사랑이 다함이 없는 것처럼 성결의 추구 또한 멈춤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며,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명을 수용하도록 모든 이를 초청한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허락하신다.
- 경건하며, 순결하며, 화목한 삶을 살라.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이 되라
-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실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책임있는 공동체를 세우며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
-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역의 효과적인 배설과 공익을 위해 행하라.
- 자선 사역을 실시하며,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며, 평등과, 정의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옹호자가 되라.
- 지구를 돌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활용하며, 믿음과, 소망 안에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돌보며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역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서약하자.

우리가 취하는 행동

이 부름이 기독교인의 사명의 성경적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 변화시키는 성결의 메시지를 설교하라
- 그리스도를 담은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가르치라
-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구현하라
- 세속적 문화들과 싸우는데 앞장서라
-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효과의 중대를 위해 다른 이들과 연대하라.

이를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노력한다.

웨슬리안 성결 연구 프로젝트

(WHSP)

참가자들

조종 위원회

David Bundy - Pentecostal

Lisa Dorsey – Shield of Faith

Donald Thorsen – Free Methodist

Bill Kostlevy – Secretary – United Methodist

Kevin Mannoia – Chair – Free Methodist

지명 참가자들

Henry Alexander – Shield of Faith

Perry Engle – Brethren in Christ

Jesse Middendorf - Nazarene

Thomas Noble - Nazarene

Diane Leclerc - Nazarene

Jonathon Raymond – Salvation Army

George McKinney – Church of God in Christ

Greg Dixon – Church of God (Anderson)

Lyell Rader – Salvation Army

Roger Green – Salvation Army

David Kendall – Free Methodist

Doug Cullum – Free Methodist

Howard Snyder – Free Methodist

James Leggett –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Lynn Thrush – Brethren in Christ

Ron Duncan – Church of God (Anderson)

Tim Erdel – Missionary Church

Barry Callen – Church of God (Anderson)

David Winn – Church of God (Anderson)

Doretha O'Quinn - Foursquare

John Hatcher - Foursquare

Steve Schell - Foursquare

David Shrout – Church of God (Anderson)

Jim Adams - Foursquare

Doug O'Brien – Salvation Army

Brian Hartley – Free Methodist

Ric Gilbertson –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Bernie Van De Walle –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Franklin Pyles –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Doug Beacham –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John Huntzinger - Foursquare

Donald Dayton - Wesleyan

Craig Keen – Nazarene